

일반
논문

한국적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와 특성, 전망에 관한 일고찰

유교정치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성실 _ 국민대학교

논문요약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해방 이후 독재정권 속에서 '부모에게는 효도, 나라에는 충성'이라는 구호로서 권력 앞에 절대복종이라는 장치로 오용되었다. 혈연, 지연, 학연은 잘못된 공동체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더해 잘못된 방향으로 남용되었고, 그러한 영향 하에 한국적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아닌 권력자를 위한 반민주적인 일들이 자행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폐해만을 가지고 '한국적'이라는 말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할 때 담겨 있는 함의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고, 민본주의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사상이다. 공통분모는 주체가 권력자가 아닌 다수의 대중,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국적 전통 사상의 토대 위에 심어진 서구 민주주의 체제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뿌리내려 잘 자랄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갖춘 민족이자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덕치와 민본주의로 대별되는 유교정치사상의 영향으로 도덕성과 공동체의식을 지닌 한국적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그간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해서도 최근의 정치적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생생히 살아 있는 민주주의가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

DOI: <http://dx.doi.org/10.31008/MV.36.1>

치주의에 근간한 서구민주주의는 각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토양 속에서 뿌리내렸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토양 속에서 뿌리내리는 민주주의 역시도 반드시 서구 민주주의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가 아닌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신은 그대로 간직하되, 한국적 요소는 과연 무엇인지, 한국적 민주주의 특성과 과제, 전망 등에 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 주요어: 민주주의, 민본주의, 덕치, 공동체, 유교정치사상

1. 들어가는 말

한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는 본래 다수의 대중에 의한 지배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플라톤은 다수의 대중에 의한 정치는 매우 위험하다고 여겼고 뛰어난 지도자가 이끄는 정치(철인정치)가 최고의 정치라고 보았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발전을 거쳐 오늘날 대다수의 나라들이 채택하는 정치제도이자 나라를 운영하는 핵심 원리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서구민주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과거 전근대적인 정치적 폐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식되어 정치적 후진성을 나타내는 여러 사건들을 겪어왔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통해 점차 민주주의의 토대가 형성되고 발전해왔으며 이는 여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

의 형성과 발전 양상과는 약간의 차이를 지닌 한국적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박정희 정권 당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사상의 요소를 악용하여 민주주의적 제도의 왜곡을 정당화한 이론적 ‘괴물’이며, 개화기 이후 비주체적이고 비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비롯한 서구 정치이념이 이식되면서 전통 정치사상을 한편으로는 타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응용하면서 지식인과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있던 ‘민본주의적 정치관’이 그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는 주장(함규진 2016)이나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는 사상적 배경과 토대가 다르며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상익 2001) 등 한국적 민주주의를 둘러싼 의견 등이 분분하지만,¹⁾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의미 속에는 보편적으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의식과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²⁾

이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 주인의식’과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식’은 국가적인

-
- 1) 한국적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유교정치사상의 민본주의 개념은 과연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후 독재정권에서 권력에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악용되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악용 소지를 애초에 지니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 2)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나 높은 투표율 등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주인의식의 향상을 의미하며, 또 부정부패의 혐의가 짙은 정치인이나 지도자는 그 능력의 유무와는 별개로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차원에서 본다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법률제정이나 부정선거, 법적 조치 등 수많은 사건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항거하게 한 동인(動因)이었다. 또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 지도자의 각종 범죄는 물론이고 병역 문제나 재산 증식,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까지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은 모두 검증하여 국민의 상식선에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성을 과연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4.19혁명이라든가 6월항쟁, 최근의 촛불시위 등으로 발현되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와 비교했을 때 미묘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권리를 찾기 위해 구호로만 외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한국적 민주주의가 서구 민주주의와 비교하여 어떠한 사상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교정치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유교정치사상의 핵심이라고 보는 덕치와 민본주의가 기본적으로는 다른 개념이지만 한국적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 속에 덕치라든가 민본주의 등의 개념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 민주주의’가 아닌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까닭은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서구 민주주의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한국적’인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정치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도덕성, 윤리문제 등과도 ‘한국적’이라고 언급되는 여타

의 문제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적 민주주의의 과제와 향후 전망에 대한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2.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유교정치사상

1) 유교정치사상과 서구민주주의의 관계

민주주의는 사전적 의미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두산 백과)”이라 정의된다. 본래 민주주의의 어원인 데모크라시(democracy)는 ‘데모스(demos 국민) + 크라티아(kratia 권력)’의 뜻을 가진 두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서 보통 ‘국민의 지배’, ‘국민의 권력’ 등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모델들』(헬드 2010) 등 다수의 연구를 통해 보면 민주주의 역시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고전적 민주주의 모델에서부터, 공화, 자유, 엘리트, 다원, 참여, 속의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를 하나의 개념으로 포섭하기에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제국이 고종의 승하와 함께 상징적인 끝을 맺었다고 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더불어 서구민주주의가 채택된 이후, 일제의 침탈(侵奪)로부터 해방 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이전에는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형태의 군주제였으며 중앙집중권력의 형태로 통치되어왔다. 가장 가깝게 조선시대의 경우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상하 수직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³⁾ 유교정치사상의 영향에 따라 덕치사상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교정치사상은 민주주의와 그 사상적 배경과 철학이 다르며 형성과 전개, 발전양상이 전혀 다른 바탕 위에 있다. 유교정치사상의 핵심인 덕치사상은 민본주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민본주의는 서구에서 도입된 민주주의와는 그 개념이 확연히 다르다. 이상익은 『유가 사회철학 연구』에서 전통 유교와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비교함에 있어서 철학적 전제와 이념적 지향점이 다르고 역사적 토양이 다르다고 보고 ① 정치의 이상, ② 권력의 원천, ③ 통치의 방법, ④ 권력의 역할, ⑤ 민(民)의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비교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이상익 2001, 300). 첫째로 유교의 정치적 이상을 ‘인륜적 공동체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정치적 이상은 ‘개인적 권익의 보호’라고 비교될 수 있고, 둘째로 권력의 원천이 유교에서는 ‘천명’, 민주주의에서는 ‘민주’라고 보았다. 셋째로 유교에서 권력의 궁극적 역할을 백성을 바른 삶 또는 윤리적

3)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상하의 관계로만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군신 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통치하는 형식을 보였기 때문이다.

삶으로 이끈다는 ‘지도’에 둔 반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요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는 ‘대리’적 역할로 규정하였다. 넷째로 통치의 방법으로 유교는 덕치를 민주주의는 법치로 보았으며, 다섯째로 백성 혹은 시민의 역할을 유교에서는 ‘도리의 주체’로 민주주의에서는 ‘권리의 주체’로 보았다(이상익 2001, 303-319).

이와 같은 지평에서 유교와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방식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민(民)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핵심일 것이다. 모든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이해방식은 유교에서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民本)과 어느 정도 상통하지만 그 민(民)에 대한 이해가 근대 서구 사상의 토대가 된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코기토(Cogito)에서 도출된 근대적 자아⁴⁾를 토대로 한 민(民) 개념이라면 유교에서 말하는 민(民)은 하늘적 가치를 지닌 존재⁵⁾

-
- 4)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명제는 중세의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 중심의 근대 사회를 개창한 개념이었으며 무소불위의 신적 지위에 인간의 이성을 위치시키는 인본주의의 서막을 알렸다. 그러나 데카르트에게 있어 개인이란 타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독단적 존재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 5) 민(民)이라는 개념은 백성 민(民) 자의 해석에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 눈에 화살이 꽂힌 모습을 본뜬 글자라는 설로 정치적으로 노예의 위치였음을 나타냈다고 보는 의견과 반대로 눈 목(目) 자에 열 십(十) 자를 더해 여러 눈(目)으로 살핀다는 뜻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백성의 소리를 통해 하늘의 뜻을 안다는 개념으로 백성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사상과 상통되어 있었고, 또한 사람이라는 가치가 우주적 가치 즉 천명을 받는 선한 본성을 지닌 개체라는 의미

라는 위상적 차이가 있다. 그러한 유교사상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의식의 근저에 이식된 민주주의는 ‘한국적’이라는 특수성을 담은 ‘한국적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유교정치사상의 긍정적인 면보다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요소를 통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부패, 정치의식 부족 등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란 서구 민주주의와는 다소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으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고 보는 경향도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목격되는 민주주의의 이처럼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일부 서구학자들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아시아적 민주주의(Asian style democracy)” 또는 “일당 우위적 민주주의(one party-dominant democracy)”라고 규정한 바 있다(Neher 1994, 949; Huntington 1991).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 논쟁’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첫째는 유교를 포함

등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중용(中庸)』에서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한다(天命之謂性)”고 하였고, 『서경(書經)』에서는 “하늘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백성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따른다(天矜于民 民之所欲 天必從之)”,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보며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귀로 듣는 것을 듣는다(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고 하여 하늘과 백성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한 아시아적 가치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양립불가능하다는 부정론이고, 둘째는 양자가 양립가능하다는 긍정론이다. 부정론 역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헌팅턴 등 서구학자에 의해서 대표되는 입장으로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는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시아는 스스로 원하더라도 서구식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으며, ‘아시아식 민주주의’는 기껏해야 일종의 일탈된 민주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Neher 1994, 958-959; Huntington 1991). 둘째는 싱가포르 전 수상 리관유 등 동남아시아 여러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견해로서 서구식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이고 타락된 병폐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바람직하지도 또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정치적 안정, 사회질서나 가족제도의 유지 및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리관유/자카리아 1999; 헌팅턴 1997, 134-142)(강정인 2000, 82-83 재인용).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본래 서구 사상사적 뿌리와 전통을 가지고 근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한 체제라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존 전통과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우리가 따르지만 적어도 한국사회 속에서 민주주의가 어떠한 사상적 토대를 배경으로 발전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고찰해볼 수 있다. 그러한 사상적 토대에 대한 이해는 결국 한국의 문화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충효나 가족, 우애, 신의, 정 등의 특징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교정치사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민주주의

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였을 때, ‘한국적’이라는 개념이 지니는 함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외래사상이나 제도, 문물 등이 한국에 수입되었을 때 그 자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한국 전통의 문화적 용광로를 통과한 뒤의 형태를 ‘한국적’이라고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우리의 문화라는 스펙트럼은 단순히 외래사상이나 제도, 문물 등을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며 어떠한 형태이든지 한국적 요소가 가미된다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정치제도의 영역이라면 가장 근간에 뿌리 깊게 자리잡았던 유교정치사상이 ‘한국적’인 요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2) 덕치사상과 민본주의

유교정치사상을 담는 대표적인 말은 ‘덕(德)’이라는 개념이다. 서구 사회에서 ‘미덕’, ‘공공선’ 등의 의미로 이해되는 개념과는 달리 ‘덕’은 ‘도(道)’라는 개념과 ‘이치(理致)’, ‘깨달음’ 등의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네 가지 성품을 상징하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일컬어 사덕(四德)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덕은 곧 인간의 선한 본성을 의미한다.

공자는 “백성을 인도하기를 법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형벌로 하면, 백성이 형벌을 면할 수는 있으나, 부끄러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을 인도하기를 덕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예로써 하면, 백성이 부

끄러워함이 있고, 또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論語』, 「爲政」 3)라는 말로 정치라는 것은 ‘법’이나 ‘형벌’이 아닌 ‘덕’과 ‘예’를 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맹자 역시도 “남에게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차마 할 수 없어 하는 정치를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마치 손바닥 위에 있는 물건을 놀리는 것같이 쉬울 것이다”(『孟子』, 「公孫丑上」 6)라고 하여 인간의 선한 본성에 기반을 둔 정치를 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덕치’는 ‘법치’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법과 형벌로는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은 ‘법치’이다. 법에 따라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인데 덕치는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⁶⁾ 그렇다면 덕치는 민주주의와 반대의 개념일까? 그러한 논의는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유교정치사상에 있어 덕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덕으로써 다스린다’는 말, ‘덕치’라는 것은 유교정치사상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며, 이러한 덕치는 요순(堯舜)으로 대표되는 덕으로써 나라를 다스렸던 고대 성왕(聖王)의 정치사상과 연결된다. 요순시대에서의 정치는 강제함이 없이 백성들을 다스리며, 또한 정권을 빼앗거나

6) 동양 고전에서 언급하는 법치 개념은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법치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과거 법치는 백성에게 부과하는 규율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오늘날 법치는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법치라는 것이 인간 내면의 덕성에 근거한 덕치와 대별되는 외적인 통제 등의 의미로서 통칭하였다.

뺏기는 것이 아닌 선양하는 형태로서 조화와 평화의 공동체를 가꾸던 체제였다. 『예기(禮記)』 「예운(禮運)」에서는 이를 대동(大同)사회라고 보는데, 하·은·주 삼대(三代)의 정치가 대동사회의 이상이 실현된 덕치로 파악한 것이 유학의 덕치사상의 시원이었다.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公平)해진다. 똑똑한 사람을 뽑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며 신의(信義)를 논하고 화목(和睦)을 닦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제 부모만을 부모로 대접하지 않고 제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 늙은이는 여생을 마칠 수 있고 장정(壯丁)은 일할 수 있고 아이는 잘 양육되며 과부, 홀아비, 병든 자들이 부양 받게 된다. 남자는 짝이, 여자는 시집 갈 곳이 모두 있게 된다. 재물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는 않지만 꼭 자기 것으로 하지도 않는다. 놀고먹는 것을 싫어하지만 꼭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남을 해치려는 꾀가 날 리 없고 도적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바깥문을 닫을 필요도 없다. 이러한 세상을 대동(大同)이라고 한다(『禮記』, 「禮運」).

이러한 덕치사상은 공자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는데, 정치란 ‘명분을 바로 하는 것’(『論語』, 「子路」 3)이며 도덕적 정당성을 갖출 때에만 이 나라를 평안히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덕성을 갖춘 통치자(內聖)가 나라를 평안히 잘 다스릴 수 있다(外王)는 사고는 “덕으로써 하는 정치는 마치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 별들이 그 북극성을 중

심으로 향해서 도는 것과 같다”(『論語』, 「爲政」 1)고 언급한 것처럼 덕의 자발성에 감화되어 나라가 평안히 다스려지는 대동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덕치주의의 이상은 맹자에 이르러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고(與民同樂) 백성을 위한 정치인 왕도정치사상(王道政治思想)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덕치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의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나 ‘백성은 통치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여기는 ‘민본사상(民本思想)’이 강조되고 있다. ‘민본(民本)’은 본래 『서경(書經)』에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게 된다”(『書經』, 「夏書」 五子之歌 4)는 말에서 언급되었는데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중요시해야 나라가 굳건해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민본의식은 공자에게서도 잘 나타나는데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論語』, 「顏淵」 7)고 하여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 여겼고, 맹자 역시도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것이다”(『孟子』, 「盡心下」 14)라고 하여 백성의 가치를 군주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까지 보았다.

이처럼 덕치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민주주의 제도와 일견 대립하는 양상으로 비춰지지만, 백성과 국민을 중점에 둔다는 점에서 덕치의 핵심인 민본사상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두산백과)”이라고 보는 민주주의의 근본 개념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오늘날

민주주의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민본주의라는 사상적 배경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백성이 중요하다는 점, 더 나아가 하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백성이라는 인식은 오늘날 한국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유교정치사상사에서 백성을 중요시하는 점은 여러 차례 등장하며, 그와 관련하여 많은 책들이 저술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목민(牧民)’에 관련된 책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산의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지방관리가 지켜야 할 사항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책이지만 관리의 입장에서 저술된 것이 아닌 민(民)의 입장에서 저술된 저서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목(牧)’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여호와와 목자시니’ 하는 ‘목자(牧者)’와 동일한 ‘목(牧)’이지만 유교정치사상에서는 종교적 성격이 아닌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맹자』에서 양양왕이 천하가 어떻게 돌아갈 거 같느냐는 질문에 “오늘날 천하의 임금들 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으니 만일 사람 죽이기 좋아하지 않는 자가 천하를 통일할 것이며, 사람 죽이기 좋아하지 않는 군주에게 천하 사람들이 돌아갈 것”(『孟子』, 「梁惠王上」 6)이라고 답하는 것에서 목(牧)의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데, 목(牧)은 통치자를 지칭하며 목민관은 통치자가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산은 「원목(原牧)」에서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통치체제의 본질적 의미를 묻고

있으며,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다(금장태 2012, 244-245). 다만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많은 유학자들이 출사하여 조정에 등용되었을 경우 유교정치사상적 토대인 덕치를 펼치기를 임금께 고하고 또 성군이 되기를 희망하였다.⁷⁾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에게 필독서로 전해지는 책이 ‘목민심서’라는 점(매일경제 2012/04/12)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대는 결국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사상이 우리의 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사상을 정치적 무의식 속에 담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해방 후 수입된 서구민주주의 제도는 그러한 면에서 상통하는 점이 있었기에 빠르게 수용될 수 있었고, 또한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독재 권력에 맞서 저항하고 그 권리를 되찾고자 노력할 수 있었다. 맹자는 군주답지 않은 군주를 쫓아낼 수 있다(『孟子』, 「梁惠王下」 8)고 보았지만, 그러한 ‘방벌(放伐)’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의에 항거하는 민중의 역사와 국민의 저항권의 발동, 통치자는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식 등은 조선시대 사림파들의 도학정신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적 무의식 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7) 조선조 대표적 거유(巨儒)인 퇴계와 율곡은 『성학십도(聖學十圖)』와 『성학집요(聖學輯要)』를 각각 저술하여 임금이 성군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퇴계는 임금이 성군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적 수양을 강조하였고, 율곡 역시 임금이 성군이 되기를 희망하며 제도와 양민정책을 통해 구체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오석원 2005, 227). 그러한 정치적 무의식의 작동은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부덕한 통치자에 대한 저항과 항거를 통해 노력해온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바로 그 자체로 증명되고 있으며 그러한 정치적 무의식의 핵심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덕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3. 한국적 민주주의의 특성

민주주의를 하나의 개념으로 단정 지어 정의 내리기 쉽지 않듯이 한국적 민주주의의 특성 역시도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요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정 지어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교정치사상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은 요소가 한국적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1) 도덕성(道德性)

덕치사상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작동되어 나타나는 양태는 ‘도덕성(道德性)’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성은 사전적 의미로 ‘도덕적인 품성’을 말하는데, 한국사회에서 통치자 혹은 리더는 능력보다는 도덕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통치자 혹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도덕성’을 꼽고 있으며(국민일보

2017/03/13; 중도일보 2017/03/12) 이는 능력만 있으면 도덕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기능주의적 관점과 대립된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구호로 당시 현직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데에는 도덕성의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 능력 중심을 강조한 대표적 기능주의적 관점이 있었다. 한국사회에서도 경제성장, 친(親)기업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는 동인(動因) 역시 도덕성의 문제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인한 부패 스캔들이다. 매 정권마다 정치는 돈과 연결되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정치자금으로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이익을 기대하는 일종의 투자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을 경우 능력과 상관없이 커다란 실망과 더 크게는 지지를 철회하는 일도 발생한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능력은 도덕성과 무관한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물론 이러한 높은 도덕성에 대한 열망이 한국 사회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지만 역사적 전통에서 충절의 도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온 유교정치사상의 의리사상과 도학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오석원 2005, 228-229).

유교에서는 하늘이 부여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직분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지명(知命)’(『論語』, 「堯曰」 3)과 구체적 현실에서 의(義)를 실천하는 ‘행의(行義)’(『論語』, 「微子」 7)를 중시하는데, 구체적 현실 상황에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밝힌 행위규범을 ‘의리사상(義理思想)’이라고 한다(오석원 2005, 17). 이러한 의리사상은 조선유학사에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통치철학의 토대가 된다. 도학사상(道學思想)과 지치주의(至治主義)를 표방했던 정암 조광조는 정치에 있어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리사상을 통해 강조한다.

임금은 의와 이, 공과 사의 분별을 밝게 살피지 않으면 안됩니다. 진실로 의와 이, 공과 사의 분별을 알아서 미혹되지 않는다면 내외가 밝아지고 마음이 맑아져서 옳고 그름, 좋아함과 싫어함이 모두 그 정당함을 얻을 것이요, 일을 처리하고 사물을 접할 때에 정당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靜菴集』 卷3 「經筵陳啓」, 參贊官時啓四 三月).

어진 사람은 오직 의리를 알 뿐입니다. 공함과 영달, 장수와 요절 등의 외물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학문에 힘쓰고 정도에 뜻을 둘 따름이니, 어찌 공함과 영달에 뜻을 두겠습니까(『靜菴集』 卷4 「經筵陳啓」, 三拜副提學時啓三).

이러한 의리사상은 높은 도덕성을 갈망하는 한국사회의 현상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 역사를 통해 전해온 이러한 정치적 무의식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바로 도덕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도덕성을 갖춘 군주를 성군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성군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바래왔다. 그래서 퇴계와 율곡은 각각 『성학십도』와 『성학집요』를 지어 임금에게 바치며 성군이 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성군이 바로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이며, 이러한 열망은 한국적 민주주의 특성으로 투영되어온 것이다. 그래서 능력을 갖춘 지도자보다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를 염원하는 것이며, 도덕적 결함은 곧 능력의 결함으로 인식되는 것도 도덕성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이라고 본 것이다. 3·15부정선거로 인해 촉발된 4·19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이나, 자신의 최측근에 의해 서거한 박정희 대통령이나 군사쿠데타, 부정축재 등으로 구속된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등의 경우에서 볼 때에도 큰 틀에서는 도덕성의 문제인 것이다. 도덕성이 문제된다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자신의 존재의미와 직분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부지명(不知命)’의 상태이자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즉, 하늘의 소리를 대변하는 백성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늘을 등지게 된 것을 의미하며 정치적 정당성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2) 공동체의식

서구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는 천부인권으로 명명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계약설인데, 이때의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상의 개

념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불가침의 상태를 정의해놓은 것이다. 즉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투쟁의 요소가 있으므로 서로의 불가침을 계약이라는 가상 상태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세워진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역사를 통해 많은 부침을 겪고 개선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제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민주주의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고, 결국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해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다.⁸⁾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공동체적인 가치가 오늘날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그러한 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대 속에는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본래 공동체라는 개념은 집단, 모임의 의미를 가지고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동체라는 특성은 흔히 개인의 자유와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는다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

8) 인민주권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천부적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는 상호 결합의 가능성과 아울러 상호 긴장의 측면도 존재한다.

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혈연, 즉 가족공동체인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유교사상의 영향에 따라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가족의 가치가 국가의 가치와 대립되는 요소가 아니라 국가라는 체제의 토대, 즉 뿌리라고 보았다.

한국의 성씨, 족보의 체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보통 고려 말 이후라고 보는데, 각 성씨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그 성씨들이 사는 마을을 이루는 형태로 혈연공동체가 생겨나고 여러 단위의 공동체가 연합되어 하나의 또 다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농경사회 속에서 경제적 협력체적 성격을 지닌 ‘두레’나 자치규약 등을 정한 ‘향약’ 등의 공동체적인 요소들은 한국사회 깊숙한 곳에서부터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보다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요시해왔음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적인 요소가 부정적 기능을 하게 될 경우 혈연, 지연 등의 요소로 변질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속성이 한국적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요소는 한국사회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역사 속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욕구가 실현되었을 때에는 어김없이 함께 잘 살아보자는 평등, 복지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때문이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양에서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가치와 대비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지는 서구 공동체주의의 공동체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서구 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가치는 공공선,

즉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논의에서 비롯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공동체의식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개인을 바라보고, 공공선과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바라보고자 하는 공동체주의의 일반적 입장과는 달리,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양에서 공동체의식은 나와 너는 남이 아닌 ‘하나’, ‘우리’라는 인식 속에서 함께 즐겁게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⁹⁾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잘 살아보세’¹⁰⁾의 주장이 통했던 것은 그 내면의 정치적 장치와는 별개로 다 함께 즐기고 잘 살고자 하는 공동체의식의 발로였기 때문이었다.¹¹⁾

9) 나와 네가 남이 아닌 우리, 하나라는 사고방식은 부정적으로 흐를 경우 ‘우리가 남이’라는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부정부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요소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폐해로 지적되는 요소이지만, 그것이 유교사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이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0)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슬로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당시 농어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구호였다.

11) 한국경제발전의 동인은 잘 살아보자는 정치적 구호 때문이라기보다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공동체의식의 발로에서 끊임없는 역동성을 보여준 국민들 개개인의 힘이었다.

4. 한국적 민주주의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적 민주주의의 득과 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한국적이라는 말 속에 담긴 함의에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상존한다. 우선 긍정적인 요소라면, 세계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비교적 짧은 축에 속하는 한국 민주주의가 불과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독재와 부정, 비리 등을 스스로 혁파하고 혁신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생생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통령과 그 측근을 둘러싼 비리에 맞선 탄핵 추진과 촛불시위 등은 폭력적 시위나 비민주적 절차가 아닌 법치와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모든 권력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다. 특히 도덕성이라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과거 독재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었던 여러 민주투쟁의 역사처럼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실천성을 과감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긍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적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언급된 공동체적 특성이나 유교정치사상의 영향 등은 오히려 부정적 요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공동체적 요소로 지목되는 가족, 혈연의 공동체를 비롯해 지연, 학연 등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성씨, 경상도와 전라도, OO고등학교, OO대학교 등은 자

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보조 수단이지만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친밀함과 관계성을 맺는 요소로 악용되었다. 물론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것이 친한 사람을 먼저 만나고 함께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인지상정이지만, 그러한 인지상정에 이권이나 사익 추구의 편법이 함께하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폐해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즉 도덕성의 문제까지도 함께 그 폐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지적되는 혈연, 학연, 지연의 문제와 과거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독재정권에서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장치로서 충효 사상을 강조했던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는 제대로 정착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충분히 낳을 법하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 의견에 대한 근거로서 혈연, 학연, 지연의 문제, 그리고 유교사상의 폐해를 극복하고 법치주의의 서구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유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를 우리는 생각해볼아야 한다. 세계 역사 속에서 500여 년 이상 한 왕조가 이어져 온 경우는 그리 흔한 경우가 아니며, 심지어 왕권국가이면서도 군신 간의 관계가 비교적 평등하고 소통이 원활했던 조선시대의 정치사상사의 토대인 유교정치사상이 과연 배척할 부정적 요소인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덕치와 민본주의로 대별되는 유교정치사상이 법치보다 무조건 나쁘거나 열등하다고 볼 하등의 이유는 없다. 그래서 공자는 “백성을 인도하기를 법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형벌로 하면, 백성이 형벌을 면할 수는 있으나, 부끄러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을

인도하기를 덕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예로써 하면, 백성이 부끄러워 함이 있고, 또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論語』, 「爲政」 3)”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덕치의 요소를 마냥 배격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은 그대로 살려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서구민주주의의 사상이 우리에게 이식되었지만 기본 토대는 한국적이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온정주의(溫情主義)나 혈연, 지연, 학연의 문제는 사회 전반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도 고위공무원 자녀의 특채나 전관예우(前官禮遇), 지역차별주의 등은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공정한 법질서에 따른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김영란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규율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것, 다스리기를 예로 한다(『論語』, 「爲政」 3)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만큼 행동한다’는 말이 있듯이, 올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사람 다움의 전인교육이 한국적 민주주의의 과제이다.

2) 공적 행위로서의 정치와 행위주체로서의 도덕적 개인

그렇다면 한국적 민주주의의 폐해로 지적되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한국적 민주주의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앞서 우리는 서구 민주주의의 토대가 개인의 자유와 사회계약설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자아로서의 개인과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단절된 상호관계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서구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까닭이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강조에 반발하여 내세운 공동체주의 역시도 정의(justice)의 문제에서 공공선(good)으로의 문제로 관심사를 돌렸을 뿐 본질적으로는 공공의 행위로서의 정치적 나와 개인의 사적영역으로서의 나를 철저히 분리시켰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private)은 정치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가지 스캔들 속에서도 굳건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태 등은 이를 반증한다.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폐해로 지적되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문제가 공사의 분별을 못하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공동체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공사의 개념을 철저히 구분하는 서구 민주주의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한국적 민주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일까?

영어 private(사적인)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 privatus는 '박탈하다'라는 단어 privare에서부터 파생되었다. 즉,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탈취해서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행위나 과정, 혹은 그 결과물 등을 지칭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또한 사적이라는 것은 감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공적인 영역과는 분리된 '나', 철저히 가려진 숨기는 무언가인 것이다. 그러한 공과 사의 철저한 분리를 추구하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와 달리 유교정치사상 속에서 공사(公私)의 개념은 대립이 아닌 상생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사와 대립되는 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 아닌 사가 없다는 인식으로 사의 가치가 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태극(太極)이지만 만물 전체가 각자의 태극을 품부(稟賦)하고 있다고 보는 ‘태극론’에서부터 인간 본성의 이치가 하나의 이치에서 각각이 이치로 나누어 품부하고 있다고 보는 리일분수(理一分殊) 등은 공사(公私)개념에 이르러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공공의 행위로 규정되는 정치가 사적인 행위와 별개로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보는 정치행위이론과는 달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정치를 하는 것(『論語』, 「爲政」 21)’이라고 보는 공자의 생각처럼 사적인 나의 행위가 공적인 나의 행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닌 일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폐해라 지적되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문제나 ‘부정부패’, ‘비리’ 등의 모든 문제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킬 때 일어나는 폐해라서 그것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적인 행위이라는 것 역시 공적인 행위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한국적 민주주의의 폐해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사적’인 존재이지만 이와 동시에 ‘공적’인 존재임을 자각한다면 도덕성의 문제는 당연히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숨은 것

처럼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미세(微細)한 것처럼 잘 보이는 것이 없다(『中庸』 1)”고 하며 사적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다. 공적(公的)인 ‘나’가 있을 뿐인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不忍人之心),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가 되도록 가정교육에서부터 공교육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교육과 부끄러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적인 행동이며 혼자서 행위인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공공의 영역이자 공공의 행위이며,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행위인 것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하는 바일 것이다.

5. 나가는 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해방 이후 독재정권 속에서 ‘부모에게는 효도, 나라에는 충성’이라는 구호로서 권력 앞에 절대복종이라는 장치로 오용되었다. ‘혈연’, ‘지연’, ‘학연’은 잘못된 공동체의식과 도덕 불감증을 더해 잘못된 방향으로 남용되었고, 그러한 영향 하에 한국적 민주주의 이름으로 국민이 주인이 아닌 권력자를 위한 반민주적인 일들이 자행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폐해만을 가지고 ‘한국적’이라는 말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할 때 담겨 있는 함의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고, 민본주의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사상이다. 공통분모는 주체가 권력자가 아닌 다수의 대중,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국적 전통사상의 토대 위에 심어진 서구 민주주의 체제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뿌리내려 잘 자랄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갖춘 민족이자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덕치’와 ‘민본주의’로 대별되는 유교정치사상의 영향으로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한국적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그간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해서도 최근의 정치적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생생히 살아 있는 민주주의가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이다. 유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망국의 사상, 조선 패망의 원흉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유교사상의 공과(功過) 중 과(過)만을 확대해석하여 본래부터 패망의 씨앗이 한국에 있었다는 세뇌의 결과물이 유교망국론의 핵심이다. 나라가 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책임이 일제에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교정치사상이 조선조 500여 년 역사 동안에 군신 간의 균형과 조화 속에 꽃피우기도 하고 폐단으로 이끌어간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조선정치의 폐단을 논할 때에는 유교정치사상 자체의 문제보다 세도 정치 등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유교정치사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배척할 문제

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한국적’이라는 요소에 필연적으로 관계된 유교정치사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 우리만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미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왔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었다. 또한 법치주의에 근간한 서구민주주의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토양 속에서 뿌리내렸듯이 우리의 토양 속에서 뿌리내리는 민주주의가 반드시 서구 민주주의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정신은 그대로 간직하되, 한국적 요소의 긍정적인 면을 잘 살려서 생생한, 살아 있는 한국적 민주주의 재탄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참고문헌

- 강정인. 2000.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구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보』 34(2), 69-86.
- 김장태. 2012. 『정약용』. 성균관대출판부.

- 성백효 역주. 1990.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_____, 1990. 『孟子集註』. 전통문화연구회.
 _____, 1990. 『大學中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오석원. 2005. 『한국도학파의 의리사상』.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기동. 1991. 『논어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_____, 1991. 『맹자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_____, 1991. 『대학중용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상익. 2001. 『유가 사회철학 연구』. 심산.
 함규진. 2016. “한국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민본주의 역할.” 『정치·정보 연구』
 19(1). 275-300.
 헬드, 데이비드(David Held). 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 박찬표 옮김. 서울: 후
 마니타스.
 『論語』. 1984. 보경문화사.
 『孟子』. 1984. 보경문화사.
 『中庸』. 1984. 보경문화사.
 『禮記』. 1984. 보경문화사.
 『書經』. 1984. 보경문화사.
 『靜菴集』. 한국문집총간 22,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기타

- 두산백과 - <http://www.doopedia.co.kr/>
 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민족문화대사전 - <https://encykorea.aks.ac.kr/>

A Study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s,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Korean-style Democracy

Kim, Sung Sil

Kookmin University

Korean democracy has been abused in the dictatorship regime since the independency as an obedience device in front of power as a slogan of 'filial piety to the parent, loyalty to the country'. The bloodline, the delay, and the caste were misused in the wrong direction by adding wrong community consciousness and moral insensitivity. Under such influence, the Korean democracy was subjected to anti-democratic activities for the power of the people, not the owner.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negatively define the term 'Korean' itself only with the harm of Korean democracy. We have to look at the implications of Korean democracy.

Democracy is the idea that sovereignty belongs to the people, and that democracy is the root of the nation. The common denominator is that the subject is not a power but a large number of masses and individuals. Korean democracy is a system of Western democracy built on the basis of Korean traditional ideas. We are already a well-established nation and nation on which the seeds of a single soil can grow. If we make good use of the advantages of Korean democracy with moralit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by virtue of the Confucian political ideology which is divided into the virtue and the democracy, it will be very helpful to overcome the harms and the recent political situation through the history

of Korean democracy. As you can see, vividly living democracy is Korean democracy.

Also, as Western democracy based on the rule of law has rooted in the history and cultural soil of the country, democracy rooted in our soil will not necessarily follow the form of Western democracy.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will keep the basic principles and spirit of democracy intact, but also examine in depth what Korean elements are, characteristics of Korean democracy, challenges and prospects.

■ **Keyword:** Democracy, Democracy(Min-Bon), Rule of Virtue, Community, Confucian Political Thought

투고 : 2017/3/31 심사 : 2017/4/13 확정 : 2017/5/21